뇌허학술상에 장충식교수

뇌허 김동화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제14회 뇌허학술상 수상자로 장충식 교수(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가 선정됐다. 뇌허학술원(원장 관응스님) 운영위원장 광우스님(전국비구니회장)은 "2년간 수상자를 내지 못했으나 올해는 총 3백여개의 저술과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장충식 교수의 저서 〈한국의 불교미술〉를 뽑게 됐다"며 학계의 성원에 감사했다. 장충식 교수는 "학문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하며 "앞으로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기초학 연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불교미술〉(1997년 2월 민족사刊)은 가람배치, 불화와 불상의 도상, 건축공예의 변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불교미술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시상식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삼선동 정각사에서 열렸다.

학술단신

'한국불교학' 제23집 발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 학술지 '한국불교학' 제23집이 발간됐다. 이번 호는 동국대 김영태 교수의 정년특집으로, △唐 구화산의 신라 지장선사 고찰(김영태) 등 8편의 특집 논문과 함께 △법안문익(法眼文益)의 선사상(혜원스님) △유식에 의거한 경험세계의 속성(김사업) △좌선에 있어서 비사량(非思量)의 심리(김호귀) 등 총 21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02)260-3122

선학강좌 수강생 모집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제2기 선학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선문정로〉를 교재로 1·2학기(각 10주)로 나누어 목정배 교수가 강의한다. 개강은 10일 오후 3시며, 강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린다. 수강료는 매 학기당 5만원. (02)265-5215

교수·학인 논문 공모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교수 및 학인 논문'을 공모한다. 승가교육기관 이상 전·현직 교수와 기본교육기관 이상 재학 학인일경우 공모가 능하다.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나 교수법과 교과과정의 개선 등 승가교육 관련 논문을 우선 채택할 예정이다. 또 교수논문에는 1백만원, 학인논문에는 50만원의 논문연구비가 지원된다.(02)720-4641

신라문화 제14호 발간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 논문집 '신라문화' 제14호가 발간됐다.

이번 논문집에는 '길장(吉藏)의 〈이제장(二諦藏)〉연구'(이태승·동국대)를 비롯 7편의 논문과 일본 다케스에 쥰이치 교수(武末純一·후쿠오카대)의 논문 '고고학에서 본 변한(弁韓)·진한(辰韓)과 왜(倭)'의 번역본도 실려있다. (0561)770-2502

◇민족사에서 열리고 있는 석지현스님의 〈벽암록〉 강독모임.

◇경전 및 어록 강독 모임

주관	경전 및 어록	강사	전화
한국불교선사상 연구모임	〈백운 경한선사어록〉 등	법성스님	(02)747-5589
민족사	〈벽암록〉	석지현스님	(02)732-2403
삼학원	〈무문관〉	김영욱(고려대)	(02)765-9602
도올서원	〈벽암록〉	김용옥	(02)744-7992
삼일선원	〈화엄경〉 〈선가귀감〉	종호스님	(02)237-4438
조계사경전연구 강원	〈원각경〉	송찬우 (승가대)	(02)720-1390
서울불교청년회	〈법화경〉	법현스님	(02)914-3558
불경서당	〈화엄현담〉	월운스님	(0346)68-1954
부산한국불교명상봉신강원	〈직지심체요절〉	각성스님	(051)809-8945
문사수법회	〈무량수경〉	김태영법사	(0344)966-2544

경전·어록강독 "불교가 보인다"

선사상연구모임·불경서당 등 10여곳
화엄경·벽암록·무문관 등 강독
교사·직장인·학생 '수강 발길'

참선 수행 등 불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계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 및 어록강독 모임에 참여하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경전 및 어록강독은 초심자에게는 다소 어렵지만 부처님의 사상을 제 3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풀이하며 불교사상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현재 교계 안팎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전 및 어록강독 모임은 약 10여개로, 불교사상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화엄경〉과 선수행관을 엿볼 수 있는 〈벽암록〉 〈무문관〉 등 선전강독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불교선사상연구모임(이하 '선사상연구모임')은 선불교사상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간화선의 현대적 재해석을 목적으로 20여명이 수강한 가운데 96년 12월 처음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30~40대로 교사, 직장인, 대학강사 등. 법성스님(대승사 주지)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모임은 지난 한 해 동안 대혜보각선사(大慧普覺禪師)의 〈서장(書藏)〉 강독을 마쳤다. 또 4일부터는 2차로 〈백운 경한선사어록(白雲 景閑禪師語錄)〉과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강독을 시작했다. 법성스님은 "선전(禪典) 강독은 일반인들도 체계적인 선 수행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 수행과 함께 실천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선을 토대로한 보살행의 방법을 제시해 주어 선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선전의 대표로 손꼽히는 〈벽암록〉 강독은 민족사와 도올서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될 도올서원의 〈벽암록〉 강독은 4백여명의 수강자가 몰려 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도올서원에서 〈벽암록〉 강의를 듣고 있는 김영진씨(대학원생)는 "물질문명에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선밖에 없다는 사실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선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독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초심자는 아니지만 강독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학문적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전강독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불교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불교연구의 성과도 가져온다.

월운스님(봉선사 회주)이 지도하는 불경서당은 화엄교학 체계를 바탕으로 15년간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불교연구 성과물을 남기기도 했다. 각 대학교수들이 그 중심을 이루며 그동안 관련 전공분야를 불교적으로 응용한 논문 발표나 불교를 또다른 전공으로 선택, 연구를 시작하기도 한 것. 불경서당에 참석하고 있는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는 "원전강독은 불교사상의 진수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 그 매력이 있다"며 "불교사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텍스트"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삼학원과 삼일선원 등은 원전강독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은정희 교수(서울교대 철학과) 등 철학 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사론〉 강독 모임등의 소규모 강독 모임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공부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높여가고 있다.

김정은 기자

"초기불교교단 치외법권 인정 계율엄격·무소유 생활때문"

신성현씨 '초기불교교단과 국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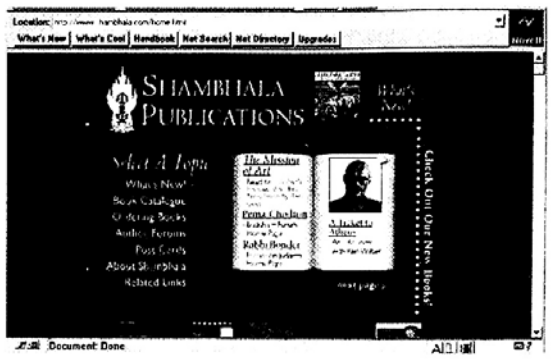
초기불교 교단이 국가로부터 출세간적 세외성(世外性)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장(律藏)에 근거, 엄격한 계율을 바탕으로 비영리활동과 무소유의 최저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현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최근 발간된 불교학보 제34집에서 논문 '초기불교교단과 국가와의 관계 -율장을 중심으로-'를 통해 "초기불교교단, 즉 상가(Samgha)가 국가로부터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독자적 계율을 지녀 국가의 법 없이도 청정한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상가가 국가와 단절된다면 본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중생구제'의 의미와 불교본래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교단은 국가와 결합하면서 국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간적 출세간이었다"며 "그것은 국가가 상가의 출세간성을 승인하며 국가권력을 상가에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통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상가의 출세간을 국가가 인정하였다는 것은 불교가 국가에 이익이 되며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요익(饒益)하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그 인식에는 엄격한 생활을 가능케하는 독자적 계율이 바탕하고 있다는 것.

신씨는 초기교단의 세외성 확보의 구체적 배경으로 △국왕의 적극적 지원 △교단과 국가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불교교단에 대한 국왕의 지원은 불교교단을 이상으로 하는 국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고를 생겨나게 했는데, 국왕은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모습을 그리며 교단을 계율로써 통제하듯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의식을 키웠다. 또 부처님과 전륜성왕 사이의 유사점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 인물이자 한 사람인 것으로, 전륜성왕의 사회구조는 불교 상가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씨는 "종교와 국가는 개인과 사회 등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에 그 방식이 어떠하든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종교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엄격한 계율을 통한 절제된 생활로 세외성이 인정됐던 초기불교교단의 모습은 오늘날의 한국불교에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고 덧붙였다. 〈정〉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해외불서를 찾아라

삼발라·위즈덤 등 불서정보 「접속」

세계 도처에서 출판되는 불서(佛書)들을 소개받을 수는 사이트가 있다. 출간된 불서들을 열람하고 통신구매도 가능한 사이트로, 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이용,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삼발라(http://www.shambhala.com/home.html)는 美 대륙을 꿰뚫는 서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티벳계 불교출판사.

〈The Compass of Zen〉(숭산스님), 〈Teaching of Zen〉(샤론 살즈버그), 〈Inside the Music〉(디미트리 엘리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위즈덤출판사(http://www.wisdompubs.org)는 경전, 동시대 고승 법문, 석학들의 연구서 등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대승불교계 출판사. △심리학 △철학 △선(Zen) △문화 등의 코너에서 다양한 불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이중 △선(Zen) 코너는 미국에서 발간된 다양한 화두집의 특설장. 영국 옥스포드의 팔리성전협회와 계약, 팔리경전 등 협회 출판물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

〈논장연구(Abhidhamma Studies)〉, 〈선심(The Good Heart)〉, 〈부처님 제자(Great Disciples of the Buddha)〉, 〈자성(自性)을 찾아라?(Who is My Self?)〉 등 신간 8권을 소개한다.

△아마존서점(http://www.amazon.com)는 2백5십만권의 장서를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최대 서점으로 군소 불교출판사의 책 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 간간히 발간하는 불서도 검색할 수 있는 곳. 이 사이트에서 'buddhism'을 키워드로 입력해, 불서를 검색하면 총 8백여권의 책을 소개받을 수 있다.

티벳스님 6명 美서 단식투쟁

"티벳이 겪는 고통 세계인 알아달라"

클린턴 美 정부는 티벳 현지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해야 하는가? 6명의 티벳 스님들이 헐리우드에서 2주째 단식투쟁을 하고 리차드 기어 등 헐리우드 스타들이 티벳 인권과 독립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

단식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깔마시췌스님(25)은 "미국에게 곤란함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티벳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세계가 보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티벳스님들의 단식투쟁은 3월초 국제법률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가 "중국은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티벳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티벳의 종교 문화 정체성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위헌'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서 비롯됐다.

국제티벳캠페인 공동회장인 리처드 기어(영화배우)도 인도 뉴델리 뉴스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6명의 스님은 6백만 티벳인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미국은 티벳 현지에 특별사절단을 파견, 이를 토대로 유엔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미국 개입을 촉구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 복용하면 1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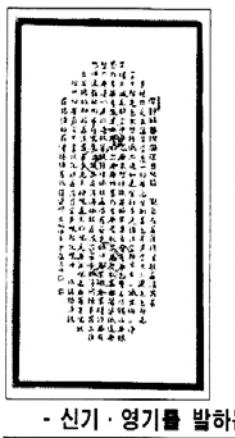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달마그림, 龍자그림 -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 사경문체와 용이 있고 법과 태기 있습니다. (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 242-0255
(야)216-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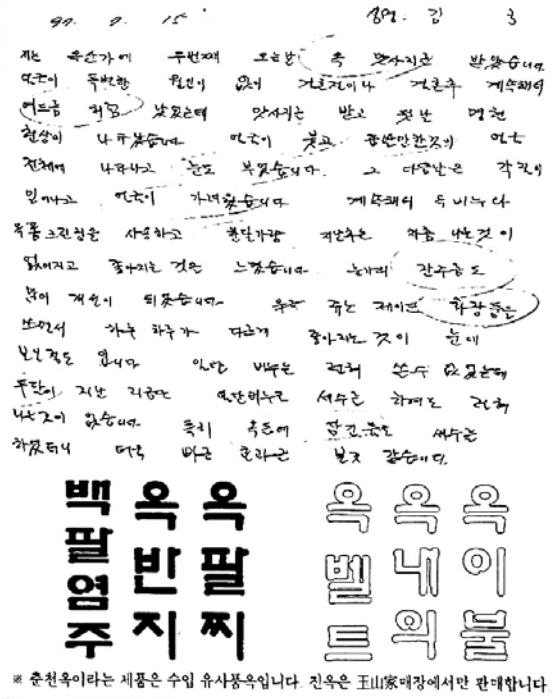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얼굴미용



백 옥 옥 옥 옥 옥
팔 반 팔 벌 내 이
염 지 찌 트 익 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合掌 777-0105(우편판매가)